



##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사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사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 주일설교

제목: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

본문: 골로새서 2:1-7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며(골로새서 1:7절),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며(골로새서 3:11절),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근본이심(골로새서 1:18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바울은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4절).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날밤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5:4-5절).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며,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나눔질문

1. 여러분! 사도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어떤 권면을 합니까?
2.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 “아픈만큼 성장한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 댓가 없이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는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 댓가 없이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는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우리 중에 먼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의 분쟁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와 교리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다. 이것은 선한 싸움으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비진리를 추방해내야 한다. 또 하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에 다투고 분리되는 경우이다. 에베소서 2:22에서 '지어져 간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며 영적 성전이 완성되어 간다는 뜻이다.

칼 융은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라고 말했다.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고통보다 결국에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 된다. 성장은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THINK

나에게 불편한 상황과 관계,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삶의 모든 걸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새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3월 30일	4월 6일	4월 13일	4월 20일	4월 27일
마을특송	온유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섬김
대표기도	안병자 권사	최오숙 권사	한영문 권사	이은자 권사	김덕실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4월 2일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4월 30일
본당청소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중식봉사					

## 주요광고

- 좋은이웃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혜롭고 성숙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 <세이레 새벽기도회>가 3월 28일(월) ~ 4월 17일(부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1주(3.28~4.3) / 주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강화 / 설교: 유천형 목사  
 2주(4.4~4.10) / 주제: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 설교: 서민기 목사  
 3주(4.11~4.17) / 주제: 가상칠언(架上七言) / 설교: 김윤석 담임목사
-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브로셔]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브로셔 맨 뒤 출석체크란을 다 채우는 성도님들께 2022 세이레 승리의 메달을 증정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적극동참해주시고, 예배 후에 브로셔를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차량운행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목장사역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총동원가족주일 / 일시: 4월 3일(주일) 오전 9시, 11시 / 장소: 3층 본당

내가 예수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물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팔을 활짝 펴 보이시며 죽으셨다.

-무명의 그리스도인.